

2014 부산 그린 아트 페어 Busan Green Art Fair 2014

# 센스 오브 원더 Sense of Wonder



일시 : 2014년 8월 15일(금) ~ 17일(일)

장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01호

주최 : 연다고서원

후원 :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센스 오브 원더 Sense of Wonder

21세기 인류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환경위기입니다. 따라서 인간 조건의 근원을 탐구하는 예술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세기 급격한 산업화로 폐허가 된 자연과 도시 그리고 황폐화된 인간 정신의 예술적 재생은 가능할까요?

<부산 그린 아트 페어 - 센스 오브 원더>는 이와 같은 물음을 화두로 하여 '새로운 공존 방식에 대한 생태적 상상력—예술적 아이디어의 역동적 재생'을 도전적으로 시도하는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부산으로 초대합니다. '생태적 상상력'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사진, 미술,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 세계 예술 작품 및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와 강연회,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의 예술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 그린 아트 페어 - 센스 오브 원더>는 한국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부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묻고, 도시 속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공생의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해양 도시 부산을 21세기의 화두인 생태 예술과 접목하여 향유하는 세계적 문화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전시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술 작품 및 사진 전시전 <센스 오브 원더 Sense of Wonder>는 세 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고통의 기원을 찾아서 - Sense of Crisis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가 자연의 자체정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양의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고, 개발 이후를 고려하지 않는 삶의 방식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활에 쓰이는 모든 상품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었을까요? 그 고통의 기원을 찾아가 봅시다.

### 공존 · 공감 · 공생 - Sense of Coexistence

우리 인간이 다시 지구의 생명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생태를 떠올릴 때면 아름다운 산수와 동물들이 떠오르지만,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자연 속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과 공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하여 공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일상에서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작은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생태적 감수성의 회복 - Sense of Awareness

생태·환경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생각합니다. 때론 광활하면서 아주 사소한 자연의 모습 앞에 인간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가꾸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울림을 받아들이고 경탄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자연Nature의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 고통의 기원을 찾아서 - Sense of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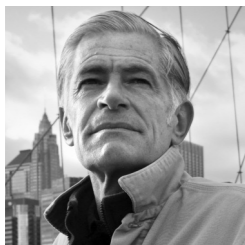
**사비 사와르카르 Savi Sawarkar**  
인도 | 화가 | 델리 대학교 미술학부 조교수

화가 사비 사와르카르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인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직접적인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을 뛰어 넘어 진짜 정의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는 그의 작품은 늘 '말할 수 없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폴 한센 Paul Hansen**  
스웨덴 | 사진작가 | 스웨덴 《다겐스 나이터Dagens Nyheter》 기자

사진작가 폴 한센은 전 세계의 소외된 곳들을 취재하며 '공감'을 주제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티,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과 기아, 재해 등의 고통이 서려 있는 곳을 찍은 그의 사진에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낙웨이 James Natchwey**  
미국 | 사진작가

사진작가 제임스 낙웨이는 세계적인 종군작가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그곳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결코 잊혀서는 안 되며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것들의 증인이 되고자 목숨을 건 기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전쟁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 공존 · 공감 · 공생 - Sense of Coexistence



**윤호섭 Yoon Ho-seob**  
한국 | 그린 디자이너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은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10년이 넘도록 헌 티셔츠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녹색의 물감으로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을 무료로 그려주는 '녹색 티셔츠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이제 일상 생활 속 작고 위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술적 작업으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평화의 원리를 예술적 감성으로 들려주는 세계적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매트 후인 Matt Huynh**  
오스트레일리아 | 그래픽 노블 작가

작가 매트 후인은 주로 수묵화와 서예를 이용하여 많은 작품을 그리고 있으며, 창조적인 그래픽 노블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말레이시아 난민 캠프 등을 담아낸 작품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인간에 대한 희망을 그렸습니다. 또한 월가 시위 포스터에선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등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출신의 가장 혁신적인 문화 공로자라고도 불리는 그의 작품은 뉴욕 근대 미술관에 영구 보존되어 있습니다.

## 생태적 감수성의 회복 - Sense of Awareness



**박대조 Park Dea-cho**  
한국 | 화가

화가 박대조는 한국화를 전공하여 사진과 수묵의 결합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특히, 때문지 않은 아이들의 눈을 통해 전하는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 카스텐슨 Sara Carstensen**  
미국 | 사진작가

사진작가 사라 카스텐슨은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주의 광활한 원시 대자연에서 살아가며, 그곳의 경이로움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사진작가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공감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로움을 함께 느끼게 합니다.

### 부대행사

8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1시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청소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다

공존·공감·공생을 생활 속 조용한 혁명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윤호섭 선생님의 작품을 함께 보며 이야기 듣는 갤러리 토크, 현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17일(일) 오후 2시~4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세대의 선택  
- 모리 겐 강연회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대지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쓰나미의 아이들』의 저자 모리 겐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토론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 인디고 서원



2004년 문을 연 인디고 서원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입니다. 내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좋은 책들이 빼곡한 인디고 서원에는 함께 책을 읽으며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디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도덕적 품성, 예술적 감성, 비판적 지성을 키울 수 있는 책읽기를 통해, 세상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의 윤리적 가치를 찾고자 오늘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운명의 주인, 영혼의 선장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인디고 아이들은 인문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누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www.indigoground.net](http://www.indigoground.net) | [indigo-book@hanmail.net](mailto:indigo-book@hanmail.net) | ☎ 051-628-2897



### 백스코 BEXC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백스코

Tel. 051-740-7300

지하철 : 2호선 센텀시티역 1번 출구

버스 : 5, 5-1, 31, 36, 39, 40, 63, 100, 100-1, 115, 115-1, 139, 141, 155, 181, 200, 200-1, 307, 1001, 1002, 1007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 인디고 서원

613-8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08번길 28 (남천동 20-7)

Tel. 051-628-2897

Fax. 051-628-2885

E-mail. [indigo-book@hanmail.net](mailto:indigo-book@hanmail.net)

Homepage. [www.indigoground.net](http://www.indigoground.net)

\* 본 전시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